휘발유 가격 올들어 최고… 제주 1700원

ℓ당 1680.70원… 2014년 11월 22일 이후 가장 비싸
추석 앞둬 각종 물가 인상으로 힘든 가계 부담 가중
국제유가 3주 연속 상승 당분간 국내제품도 오를 듯

추석을 앞두고 제주지역 기름 값이 올들어 최고치를 경신하며 각종 물가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역 보통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80.70원을 기록했다.

8월 1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약 한 달간 ℓ당 1667원을 유지했던 제주지역 휘발유 가격은 지난 7일부터 오르기 시작해 하룻 만에 1680원대에 진입했다.

도내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ℓ당 53.08원 비쌌고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했을 땐 서울(ℓ당 1718.48원)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시내 대부분 주유소가 이미 휘발유를 ℓ당 1690원에 판매하고 있어 조만간 1700원대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올해 1월 ℓ당 평균 1601.30원으로 출발한 제주지역 휘발유 가격은 3~4월 소폭 하락하다 5월 이후부터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였다. 이날 기록한 제주지역 휘발유 가격은 올들어 최고치로 다른 해와 비교했을 땐 2014년 11월 22일 (ℓ당 1681.57원)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경유 값도 전주보다 ℓ당 0.11원 오른 1488.92원으로 기록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내 경유 값은 전국 평균보다는 ℓ당 60.37원 비쌌으며, 휘발유처럼 한동안 보합세를 보이다 지난 7일부터 오르기 시작했다. 도내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ℓ당 1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국제유가는 미 원유 재고 감소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작업 재개 경고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면서 "국제유가가 3주 연속 상승함에 따라 국내제품가격도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경우 9월 첫째 주 가격이 배럴당 평균 76.1달러로, 전주보다 1.0달러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지역 휘발유 최고가(ℓ당 1990원)와 최저가(ℓ당 1660원)의 차이는 ℓ당 250원이었으며 경유의 경우 최고가(ℓ당 1700원)와 최저가(ℓ당 1479원)의 차이가 221원이었다. 이상민기자

제주 치매유병률 전국 최고 '빨간불'

도내 치매환자 1만888명·유병률 12.13%
신경과 전문의 "조기 진단·치료 중요"

오는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앞두고 제주지역 치매유병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치매환자의 효과적인 치료·관리를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9일 중앙치매센터 등에 따르면 9월 현재 제주도내 치매환자는 모두 1만888명이며 치매유병률(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치매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2.1%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통계에서 지난 5월 말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만43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내 인구의 14.25% 수준으로, 2005년 10.00%, 2010년 12.19%, 2015년 13.75%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노인성 질환인 치매유병률도 오는 2027년까지 12.6%, 환자수는 1만796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병원 신경과 여민주 과장은 이에 따라 "치매는 조기에 진단해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면 말기까지 진행되지 않고 초기나 중기 단계에서 멈출 수 있다"며 "특히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부터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통해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매도 발병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평상시 생활에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치매 생활 수칙을 실천하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정경기자

청소년 도박문제 인식 개선

'행복 드림 콘서트' 11일 열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는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앞두고 오는 11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도박문제 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한 '제주 청소년 행복 Dream 콘서트'를 개최한다.

'도박문제 인식주간'은 도박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도박문제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지정한 '도박중독 추방의 날'(9월 17일)을 포함한 주간을 일컫는다.

제주센터는 11일 오후 2시부터 도내 청소년 및 학부모 4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을 주제로 한 영화 'Holic'을 상영하고, '공부의 신'으로 유명한 강성태씨를 초청해 청소년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도박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꿈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대극장 로비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내 6개 유관기관(제주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주스마트쉼센터,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주금연지원센터,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과 함께 연합 캠페인을 통해 도박, 인터넷, 알코올 등 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체험 및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보경 제주센터장은 "도내 청소년에게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박문제 치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는 문제 도박자와 가족을 위한 치유상담은 물론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도박문제 전문상담기관이다. 국번 없이 1336으로 전화하면 누구나 24시간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정성들인 벌초" 9일 오전 제주시 공설공원묘지에서 한 가족이 조상 묘를 깨끗이 단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 여행 하루 평균 3.2곳 방문

제주연구원 손상훈 연구원 '제주방문객 통행실태 분석'
체류일수 5.5일, 이동시간 115.8분… 8월 통행시간 길어

제주 방문객들은 숙소를 포함해 하루 평균 3.2곳을 방문하고, 제주체류일수는 5.5일/인으로 조사됐다.

제주연구원 손상훈 책임연구원은 지난 7일 '제주 방문객 통행실태 분석'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문객 통행실태조사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방문을 마치고 복귀하는 내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 제주 방문객의 제주도착일 통행시간, 즉, 이동에 소비한 시간은 평균 115.8분/인으로 나타났고 제주체류일의 하루 통행시간은 평균 199.0분/인으로 분석됐다. 제주체류일의 경우 응답자의 18.3%가 270분 이상을 통행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루 통행시간을 월별로 비교한 결과 8월이 다른달에 비해 통행시간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됐다.

손 책임연구원은 "제주 방문객의 하루 통행시간, 특히, 렌터카 이용자의 하루 통행시간의 경우 교통측면에서 교통혼잡, 교통안전과 비례하고, 관광측면에서 관광지 체류시간, 소비규모와 반비례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책지표로 선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이번 연구 결과는 제주지역내 방문객 통행수요를 추정하는데 활용되고 도민 통행수요와 연계해 제주도내 전체 통행수요를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지역교통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인프라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했다.

손 책임연구원은 아울러 "교통부문뿐만 아니라 관광부문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를 들어 관광교통계획 수립, 관광교통수단 도입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서도 케이크 식중독 의심 환자

7일부터 연일 발생 9일 기준 34명… 9명 호전

제주에서도 유명식품업체 계열사가 납품한 초코케이크를 먹은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7일 첫 환자 발생 이후 추가 환자가 연일 발생하면서 해당 학교의 급식 중단 및 단축수업도 계속될 전망이다.

9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중독 원인으로 추정되는 '우리밀 초코 블라썸 케이크'를 지난 5일 급식에 제공한 서귀포시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지난 7일 식중독 의심환자 12명이 발생한 이후 8일 11명, 9일 낮 12시 기준 11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따라 식중독 의심 환자는 모두 34명으로 늘어났지만 9일 기준 9명이 호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식중독 의심환자의 인체검체를 조사한 결과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으며 해당 학교는 오는 12일까지 급식 중단 및 단축수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8일 오후 5시 기준 전국적으로 문제의 케이크 섭취로 인한 식중독 의심환자수는 2161명으로 집계됐다. 오은지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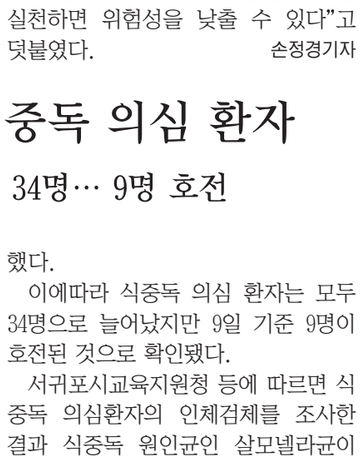
제주공항 대합실 천장서 오수 날벼락

9일 제주국제공항 대합실 천장에서 오수가 쏟아져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제주국제공항 3층 출발대합실 천장에서 갑자기 오수가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수는 약 10분간 바닥으로 흘러내렸으며 악취까지 발생해 이용객들이 자리를 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4층 중식당과 한식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배수관을 점검했는데 이 때 관로 연결이 잘못돼 누수가 발생한 것 같다"며 "관로를 긴급히 보수하는 한편 바닥에 흘러 내린 오수를 모두 치우고 방향제를 뿌려 약 1시간 만에 정상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사단법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18 제주 사회적경제 한마당
탐라문화광장 | 9.15(토) 오후 1시

좋은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공존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우리들의 수눌음 정신 입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사회적기업의 재화와 세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돕기위한 제도이며,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또 하나의 생산'**입니다.